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핵심을 말해!

어느 성도가 상담을 위해 기도원까지 나를 찾아왔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다. 물론 사연이 있었겠지만 한참 동안 말을 빙빙 돌린다. 계속 듣다가 내가 한마디 했다. “그래서 핵심이 뭐니까?” 그제야 자신이 병들었노라 말한다. ‘진작 말하지.’

예수님이 바디매오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바디매오가 “제가 본시 2대째 맹인이었고, 남들은 가망이 없다지만~~~” 주저리주저리 말했던가. 아니다. 그는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딱 핵심만을 말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 여기셔서 선전적 소경인 그를 고치셨다. 어느 사람이 돈을 빌리러 간다고 하길래, “가걸랑 말 돌리지 말고 바로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십시오’ 해라.”라고 신신당부했다. 내 말대로 했더니 상대가 ‘진정성이 보이네. 정말 급했구먼.’ 하더니 돈을 빌려줘서 일이 잘 해결되었다.

가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천한 우리를 도우시려~~’ 이렇게 길게 서두를 꺼내는 기도를 듣는다. 아마 하나님도 이 기도를 들으시다가 나처럼 한 말씀 하실 듯하다. “근데 핵심이 뭐냐?” 맞다. 우리 아들이 나에게 ‘예수중심교단의 총회장이시며, 예수중심하나되기운동 본부장이신 아버지~’ 이렇게 한 적이 없다. 그냥 ‘아빠, 돈 줘.’라고 할 말만 한다. 우리 아들에게 나는 그냥 ‘아빠’일 뿐이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버지’이시니 우물쭈물할 게 없다. .

성경에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다. 주저리주저리 말하지 말고, 빙빙 돌리지 말고 핵심을 말하라는 것이다. 나는 문서선교학을 담당하는 교수에게도 ‘글을 쓸 때 부연 설명이 길지 않게, 주제에 맞게 핵심을 쓰도록 가르치라’고 말해줬다. 고래등의 힘줄처럼 진한 핵심을 먼저 던져라. 자고로 굵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잔가지를 쳐야 하는 법, 말이나 글이나 부연 설명이나 꾸밈말이 너무 많으면 핵심이 흐려진다.

핵심을 빼고 말을 빙빙 돌리는 자를 경계해야 한다. 빙빙 말을 돌려 정신을 흐리게 한 다음에 뭔가 갑취하거나 사기를 칠 수 있으니. 노른자 켜 계란은 맛이 없더라!

내 목회 40년! 오직 기도로 만든 작품이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내 일생은 기도였다’고 고백하시는 목사님의 잠언이다. 히브리서 11장을 수놓은 믿음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이다. 왜냐?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이요, 기도란 믿음이 있는 자의 특권이기 때문이며, 이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본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이다.

20분으로 압축된 목사님의 성역 40주년 영상을 본 사람이라면 공히 느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와 노력으로 달려온 목사님의 사역 자체가 살아

을 전하고 계신다. 물 없는 사막과 눈 덮인 산야를 걸으시면서도 꿈을 꾸고 도전하며 기도하신 결과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역사다. 목사님은 하계산상집회 둘째 주, 성산을 찾은 성도들을 향하여 “내 목회 40년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만든 작품이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로 인생의 멋진 작품을 만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라고 촉구하셨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40년 목회 동안 늘 기도로 새벽

나며 때론 손가락질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며,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함께해주셨고,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설만한 물가로 인도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니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고(막1:35),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산에 오르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다(눅6:12).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아 오직 예수 닮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2024 하계산상집회 둘째주간(8월 19일~22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계신 하나님을 웅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도로 움직이는 가슴 벅찬 역사를 기대하며 꿈꾸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의 진실을 토로하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 아닌가.

목사님은 40년 전, 한 명을 놓고 시작한 개척교회 시절부터 세계교구를 꿈꾸며 기도하셨고, 이단 시비로 교계의 핍박이 거센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가 침묵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전 세계 74개국에 복음

을 깨웠고, 단 하루도 밤에 그냥 이부자리로 들어가 누워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쳤습니다. 아침에 2시간, 자기 전에 2시간, 집회가 있을 때는 오전에 3시간, 집회 전에 4시간, 도합 7시간을 기도했고, 12시간을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듯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행6:4). 모세가 오직 기도로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트리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듯이, 나 역시 오직 기도로 물 없는 사막과 눈 덮인 산야 같은 40년의 사역을 이끌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속이고 떠

래서 40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같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기도를 잃은 자에겐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이고,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원에 큰 글씨로 유언처럼 남겨놓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입니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절대 부도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두려워 말고, 내 목회 40년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만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체조시간



야외식당



성령의 역사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13:1~9)

자갈밭은 잡초도 싫어한다

“자갈밭은 잡초도 싫어한다.”

성질 팍팍 내고, 버럭 하는 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화 잘 내는 여자, 성질 막 부리는 남자를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절세미인이란도, 아무리 능력 있는 자라도 사절입니다. 개도 화 잘 내는 주인은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옥토는 모든 초목이 좋아하여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싹을 틔워 열매를 맺습니다. 온유한 자는 누구나 좋아하고, 그 곁에 사람이 몰려듭니다. 온유한 자와 동업하고, 온유한 자와 결혼하고, 온유한 자와 목회하면 성경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넉넉히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과수원을 하든, 인생의 정원을 가꾸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갈을 골라내고 옥토로 만드는 일입니다. 자갈밭은 바로 분노, 험기입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공사를 하며 보니까 요즘 포클레인은 엄청 좋아졌습니다. 단순히 땅만 파는 정도가 아니라 360도 회전하며 못하는 게 없습니다. 포클레인이 자갈밭을 푹 파더니만 탈탈탈 털자 흙은 땅으로 떨어지고 자갈만 포클레인 갈퀴에 남아 그것을 갖다버리니 바로 옥토가 됩니다. 저는 포클레인 기사는 엄청나게 신나고 재미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원장이 말하길, 포클레인으로 땅을 팔 때도 그렇지만, 더욱이 털어낼 때는 포클레인 기사가 받는 진동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깊었습니다. “맞아! 우리 속의 자갈밭을 옥토로 만들려면 상당한 진동, 고통이 따르지.”

천하를 다스리기 전에 나를 다스리는 자가 돼라

모세가 그랬습니다. 성경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12:3)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모세의 천성은 결코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자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애굽 병사를 쳐 죽였던 혈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로 그는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포클레인으로 자갈과 흙이 분리되는 시간이었습니 다. 긴 고통의 시간이었지요. 40년을 탈탈 털고 자갈을 골라내더니 모세는 천하에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아내 십보라가 죽은 후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모세의 천성 같아서는 “이것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미

자갈을 다 거둬낸 옥토였기에 분노하지 않았습니 다. 대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모세는 ‘뽕통이다’ 한 것이 아니라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민12:13).

저는 ‘온유하다’는 것은 천성적인 부드러운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령으로 길들여진 성품, 하나님을 통해 변화된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가 그렇습니 다. 저도 한 성깔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지금처럼 온유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 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자갈을 골라내는 탈탈 털는 시간이 제게도 있었습니 다. 늘 방언으로 탈탈탈 저 자신 속의 자갈을 골라내었더니 옥토가 되었고, 저를 통해 영혼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히게 됨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으나(행9:1) 성령이 임하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매한 핍박과 환난과 모함에도 참고 이겨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항상 기뻐하라’ 한 그의 편지가 그의 변화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폴라에서 탄산이 빠져서 생수처럼 잔잔하게 된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여러분, 분을 내게 하는 것은 마귀의 전법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엡4:26~27). 마귀란 놈은 자기의 때가 얼마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12:12).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화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단순히 화가 나게 툭 건드렸을 뿐인데, 그 화가, 그 분노가 죄를 낳더라 말입니다. 마귀란 놈은 쾌재를 부르게 되죠. 증거가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 죄함이 많으니라”(잠29:22). 가인을 보세 요. 동생 아벨을 향한 분노가 살인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창4:5~8)?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 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내 서 북까지 치

습니 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시37:11).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 얻고 싶으냐? 복 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나에게서 온유함을 배우라’고 하십니다(마11:29). 예수님은 옥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고(벧전2:23),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심으로 온유함을 보이셨습니다(행8:32). 그래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빌2:5).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사랑일진대,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쉬이 분을 내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제가 작시한 것 중에 ‘모래와 파도’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작시한 계기가 있습니다. 목회 초기,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마음도 식힐 겸 혼자 제주도에 갔습니 다. 제주 바닷가에서 상념에 잠겨있는데, 거센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위에 부딪히니 파도가 자지러지게 소리를 내고 아파하며 물러가고, 받아친 바위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반면에 눈을 돌려 넓은 모래사장 을 보니 같은 세찬 파도가 몰려와도 모래는 그것을 다 안아 잠재우고 물방울을 만들며 방글방글 웃고 있었습니 다. 저는 그곳으로 달려 내려갔습니 다. ‘세상에 모래 같은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 외에 누가 모래 같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저는 ‘모래와 파도’를 ‘오 예수여’로 개사해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바위가 부서지면 모래가 됩니다. 내가 부서지면 모래처럼 사나운 파도도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됩니다. 아직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혈기가 난다면 아직 내가 부서지지 않아서 그렇습니 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낮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16:32). 세상 모든 것은 지켜주는 자가 있지만, 내 마음만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콜라처럼 조금 흔들렸다고 확 다 쏟아내지 말고, 생수처럼 이리저리 흔들려도 끝까지 잔잔한 온유한 자가 됩시다.

지금, “나는 옥토인가, 자갈밭인가?” 점검해보십시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약1:20~21).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체험 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다. 신앙생활에 보다 열심을 내지 않는 이유는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1,600년 동안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의해 쓰였다. 시대순이나 사건 순 등의 일정한 순서로 연결되지 않는데, 이는 각자 체험한 사실을 써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그대로 역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낙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할 아버지가 입대했던 군대에 아버지가 입대하고 후에 다시 아들이 입대한다. 사람은 바뀌고 지나가도 군대는 언제나 막강하게 존재한다. 이와같이 어느 시대에 사는 성도이건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있어야 한다. 귀신을 박멸하는 것은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이다. 그리고 그 승리의 남은 작업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세상 지식 있는 자들이 교회에 모이면 믿음보다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문화적인 모임만을 갖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빌려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에는 아무리 믿음을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저 사회에서 화젯거리가 되는 시사 문제나 정

치 문제를 말하면 귀가 솔깃해진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자들이 모인 교회는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단체가 되고 만다.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사회운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할 강단은 사회개혁을 부르짖는 연설의 목소리만 높아갈 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다. 주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그분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다. 마음에 접근해오는 어떤 유혹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이간시키거나 배신하게 할 수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롬8:35~39). 우리는 주님을 향해 갈 것인지, 아니면 자기 뜻대로 갈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해야 하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기로 작정해야 한다. 복음은 착한 행실을 강요하는 교훈이 아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매일매일 이기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주님과 더 나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 뜻을 정하여 가다 흔들리지 말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

신기류 목사

:: 신앙논객 ::

당신이 그 사람이 돼라

최근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 선수가 시합 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종목을 주관하는 협회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밝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자세한 속사정이야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인류의 화합과 공존으로 아름답게 치러져야 할 올림픽에서 같은 나라 선수와 협회 간의 갈등과 분쟁이 그 정신을 퇴색시킨 것 같아 자못 안타깝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선수가 나중에 체육계 또는 해당 종목의 지도급 인사가 되어,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부조리나 잘못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면? 선수 개인 자격으로 언론에 성토하는 것 이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청소년 수련회뿐 아니라 수련회 때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각 분야에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교단에서 배출되기를 바라며 기도한다고 말씀하신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한 자들이,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세상 각 분야의 실무자 내지는 책임자로 들어가 자신이 속한 곳을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뉴스를

보라. 정계나 재계나 학계, 언론이나 연예 및 스포츠 분야에 이르기까지 좋은 소식을 접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딤후3:13)라는 말씀이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살며 하나님 뜻대로 정도(正道)를 가는 사람들이 각 분야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바뀔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다!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백성의 시작을 열었고, 요셉은 대국의 총리대신이 되어 기근으로 죽을 위기였던 세상을 구했고, 모세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셨다. 이제 당신의 꿈(비전)은 무엇인가? 세상 어느 분야가 잘못되고 있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 변화의 주체가 돼라.

신혁주 전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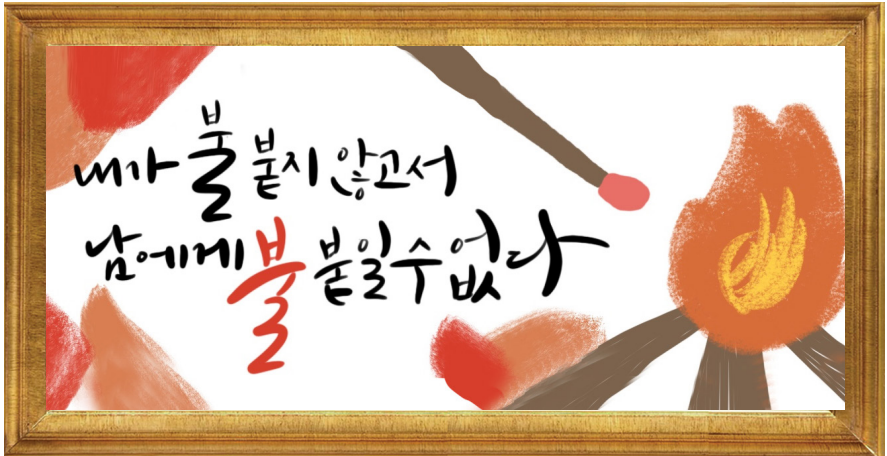
:: 책을 펴다 ::

이를 식초에 담근다고?

당나라에 낙천(落薦) 백거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시인으로도 명성이 높았고, 정치적 능력도 겸비하여 관운이 따르는 자였다. 그가 경종 2년에 소주(蘇州) 자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그곳은 그의 고향이기도 해서 그가 부임하는 날 소주의 백성들이 대대적인 환영을 벌였다. 백거이는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자기에 거는 기대가 크를 알았다. 그래서 그는 부임하자마자 정무에 몰두했다. 마음 같아서는 오랜만에 옛 친구랑 술이라도 한잔하고 싶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일에만 몰두했다. 주위에서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니냐고 하자 백거이는 이렇게 말했다. “이 고장이 내 고향이기도 하지만, 사실 나는 이 고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네. 서투른 것을 보충하는 데는 부지런함이 으뜸이고 제일이라네.”

공자의 제자 중 재여는 가장 뛰어난 달변가였다. 그러나 재여는 말과는 완전히 다르게 게을렀다. 그런 재여를 보고 공자는 “썩은 나무에는 조각하지 못하며, 썩은 흙으로 쌓은 담은 흠손으로도 마무리할 도리가 없다.” 하며 탄식했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잠10:26). 이를 식초에 담그면 어찌 될까? 눈에 연기를 피우면 눈을 제대로 뜰 수 있을까? 부지런은 부자의 조상이요, 게으름은 가난한 자의 조상이다. 아랫목 구들장이나 쪼어지고 있는 자들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라. 위대한 일을 고안하는 자는 천재이지만, 이를 성취하는 자는 부지런한 자임을 알자!

이초석 목사 저서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지 말라’ 중에서



:: 생명의 말씀 ::

불행해지는 방법, 비교의식

늘 남과 비교하며 자신은 불행하다고 말하는 주부가 있었다. 아이가 학년 초 시험에서 전 과목 100점을 받았다. 어머니의 닦달에 아이는 앞집 친구보다 열심히 공부하였다. 시험을 치르고 오는 아이에게 어머니는 물었다. “오늘 몇 점 맞았어?”, “100점이에요.”, “앞집 영식은?”, “90점이에요.” 아이는 잘했다고 엄마가 칭찬해줄 줄 알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다시 질문했다. “오늘 시험에 몇 명이나 100점 맞았어?” 단순한 100점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것이다. 유일한 100점이어야 한다.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몰라. 시험이 쉬웠겠지?” 옆에서 아내의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말했다. “아니, 100점이면 됐지, 뭘 더 바라?”, “그러니까 당신도 그 모양이에요. 앞집 남자 보세요. 부장이지, 돈도 잘 벌어오지. 인간성도 좋지. 아이들 교육에 신경 써주지. 당신은 그러니까 안 돼요.” 남편도 참지 못했다. “그런 당신은 학교 다닐 때 1등 했어?” 불행해지는 확실한 방법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멀어진다.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비

굴해지고, 자신보다 낮은 사람과 비교하면 우월감에 사로잡혀 교만해진다. 비교의 눈, 비교 프레임의 함정에 빠지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 코넬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지수를 조사해 보았다.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의 행복 점수는 10점 만점에 7.1이었고, 은메달리스트의 행복 점수는 고작 4.8이었다고 한다. 은메달을 받은 사람은 금메달과 비교하기 때문에 은메달의 크기는 선수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반면 동메달리스트는 까딱 잘못했으면 4위에 그칠 뻔했기 때문에 동메달의 주관적 가치는 은메달의 행복 점수를 뛰어넘는다는 것이다. 행복의 가장 큰 적은 비교이고,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행복도는 달라진다는 것이다.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먼저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누구도 비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행복해지고 싶다면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내가 가진 것에 눈을 돌려야 한다. 남들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내가 되는데 집중해야 한다.

임택함 목사

:: 동행하는 삶 ::

:: 귀를 기울이세요 ::

목사님, 우리가 열매예요!

내가 회사에 다닐 때의 일이니 벌써 10여 년 전이다. 유치원 교사를 오래 하다가 유치원 부원장님의 추천으로 유아교육연구소에서 원하던 사무직으로 일하게 되었다. 평소 나를 좋게 보셨던 부원장님은 그곳 소장님도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며 분명 정 선생님을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하셨다.

이직 후 직장 보육시설 위탁 운영과 다양한 유아교육 연구를 하며 3개월이 지났을 때 연구소 차원에서 필리핀으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유아교육과 교수님 세 분과 소장님, 연구소 멘토 목사님, 아기 학교 사역 전도사님, 이렇게 여성 여섯 분을 모시고 그곳에서 신학생들에게 유아교육 세미나를 해주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공적으로 세미나를 마치고 귀국하였다. 며칠이 지난 뒤 갑자기 소장님께서 나에게 출석하는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셨는데, 예수중심교회에 다닌다고 대답하니 그 이후부터 소장님의 퍽박(?) 아닌 퍽박이 시작되었다.

나는 소장님에게 당당하게 말했다.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오직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깨끗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내 말을 들은 소장님은 같이

선교여행을 갔던 분들에게 내가 이단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며 고민 상담을 하셨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말하기를 만약 정 선생이 정말 이단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예배했던 시간에 함께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같이 있으면서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니 다시 이야기해보라고 했다. 그러나 소장님은 교회를 옮기지 않으면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엄포를 놓았다. 나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좀 더 지켜봐달라고 말씀드렸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다. 나중에 소장님은 오히려 내가 대학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비도 대주시며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시는 분이 되셨고, 연구소에 오는 모든 분에게 우리 정 선생은 연구소의 보물이라고 소개해주시며 나를 많이 아껴주셨다.

얼마 전 전도집회 광고로 인해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다. 그 방송국에 다니고 있는 친구에게, “너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니다. 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런 내용의 뉴스를 내보내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한 번만 제대로 들어도 그러지는 못할 텐데 정말 안타깝다, 너무 속상하다.” 등의 말들을 하며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다. 물론 그 친구는 그 일과는 관련 없

는 업무를 했지만 거기서 일하니 그렇게라도 말해주고 싶었다.

그 집회에서 목사님은 평소 ‘거센 파도가 유능한 해군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듯 끝까지 당당하셨고 멋지셨다.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셨다. 예배 말미에 모든 병든 자를 안수하신 후 지쳐 털썩 주저앉으시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났다.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온몸이 부서져도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시는 분인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속상한 마음 가운데 문득 목사님께 ‘우리가 열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우리 교인들은 정말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들만 모여있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아, 우리가 열매구나! 우리가 목사님의 열매구나!”

목사님은 평생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계신다. ‘죽으면 죽으리라,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기고 퍽박과 순교가 온대도 싸워라!’는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 그 결과물, 열매!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의 열매입니다!”

정효경 집사
happy_holly@naver.com

Good News

탈무드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는 왕이 자신에게 사형판결을 했다는 말을 듣고 살려달라고 탄원했는데, 1년만 사형을 연기시켜 주신다면 왕이 가장 아끼는 말이 하늘을 날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이 말이 거짓말이라도 1년 뒤에 사형시키면 된다는 생각에 신하의 청

을 들어주었습니다.

간신히 사형을 면한 신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빈둥대기만 했는데 이 모습을 본 마부가 ‘왜 시간을 낭비하냐’고 묻자 하는 말이, “세상에 하늘을 나는 말이 어디 있단 말ियो?”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마부는 ‘그렇다면 1년 뒤에는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야지. 그 사이 왕이 죽거나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고, 어쨌든 말이 저절로 하늘을 날게 될 수도 있잖소. 어쨌든 1년은 벌였잖소.” 그는 시간을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는 사람들은 죽어서 영벌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상화평 목사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2004년 출간된 책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보통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상식을 뒤엎고 바쁠수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그 결과 그는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일을 해내고, 3천 권 이상의 책을 썼으며, 37곡의 찬양을 작곡했습니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총회장 목사님 역시 늘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며 쉴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매

일 4시간 이상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말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이 바쁘고 분주하신가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바쁘고 분주하다는 것은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역시 사역을 위해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막1:38)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이번 청

년 수련회에서 목표와 목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요일3:8)인 것처럼, 자신의 목적과 사명, 목표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분주함 속에서 자신의 방향도 모른 채 달립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저는 평소 기도하는 습관은 있지만 여유가 있을 때만 더 기도했습니다. 바쁠 때는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바쁘고 분주할수록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는 말이 저와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소희

나에게 생수!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언제부터인가 ‘나에게 생수’라는 찬양은 예배의 한 부분이 되었다. 힘차게 생수를 외치는 총회장 목사님과 두동실 리듬에 맞춰 손뼉 치고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이 솟게 하는 희망곡이 되었다. 이 찬양을 힘껏 부르면 세상의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성도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다. 더더욱 어린아이같이 율동까지 겸비하여 찬양하시는 목사님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저렇게 순수하게 찬양해야 하는데’란 생각에 더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된다.

반복적으로 그 찬양을 부른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목사님은 왜 유독 이 찬양을 많이 하십니까? 왜 유독 이 찬양에 감동을 받으셨을까?’ 그런데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이 찬양을 왜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는 성도들의 삶에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길 원하시는 목사님의 사랑이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요7:37~38).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뜨겁게 살아 숨 쉬면 각자의 내면에서 생수 같은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어있다. 인간은 누구나 결핍이라는 목마름이 있고, 이 목마름은 때로는 돈, 명예, 사랑 등 세상의 채워지지 않는 많은 것들로 갈증을 호소한다. 그럼에도 세상 것으로 채워진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을 느끼고 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 외에 다른 것들로 목마름을 호소한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생수가 부어지고 그 생수를 마시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요4:14), 이 물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한다. 이런 축복을 아시기에 목사님은 오늘도 ‘나에게 생수!’를 외친다. 자 이제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힘차게 ‘나에게 생수’ 찬양을 불러보자.

송현혜 생도
charisma0691@hanmail.net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